

겨레말 나들이 · 겨레말 편찬 현장 · 새로 찾은 겨레말 · 겨레말 우체통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나들이

북한영화의 21세기 트렌드

전영선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이즘의 북한 영화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는 단연 선군과 경제·과학이다. 2000년 이후를 선군시대로 자처하는 북한이고 보면 '선군정치'는 극히 당연한 주제라 할 수 있다. 경제나 과학이야기도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늘 중시하였던 주제라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창작된 북한 영화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양상은 심상치 않다. 창작 현황을 놓고 보아도 북한 영화에서 경제를 주제로 한 작품이 압도적이다.

조개양식장 건설을 주제로 한 <내고향 바다> (평양연극영화대학, 2005), 함흥청년목장 건설 실화를 영화로 만든 <래일의 개척자들>, 경제 발전에서 실적보다는 실리를 위주로 해야한다는 제주를 담은 <부부지배인>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1), <새령마루에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5), <조국땅 한 끝에서> (2003), 화장품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 <봄향기>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5), 자신이 살고 있는 농촌을 최고의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제대병사 부부의 노력을 그린 <그들은 제대병사였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2), 군대에 자원하여 6년이나 더 군대생활을 하는 병사와 병사를 걱정하는 병사 어머니를 돌보다 함께 대홍단군 감자협동농장으로 자원한 이야기를 그린 <기다리는 처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2), 탄광 인수원으로 임명되어 광부들의 먹거리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 <새로운 처녀 인수원> (조선중앙텔레비죤, 2004), 동해안에 건설된 염전인 광명성제염소 건설 현장을 소재로 한 <부부수첩> (2000), 전력생산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캐는 제대군인 탄광 돌격대의 이야기를 다룬 <민들레 꽃다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4) 등이 2000년 이후에 창작된 경제관련 영화들이다.



▲ 북한영화 - 한 여학생의 일기(2007년)

● 북한 영화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감동을 만들어 내야

사실 경제문제를 영화로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다. 기실 영화라는 장르는 경제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적절한 장르가 아니기도 하거나 영화인들이 경제문제를 녹여내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잘 만들었다고 해도 본전치기도 어렵다. 영화는 지극히 감성적이고, 드라마틱한 재미를 위주로 하는데, 경제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쩌다 나오는 경제영화라고 해야 은행털이나 작전세력에 관한 것이다. 이것도 경제와 관련있다고 한다면 말이다.

영화와 경제는 상극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다. 영화인들에게 경제문제는 낯설고 어색한 영역, 극히 공식적인 외투를 입고 극히 편안한 신발을 신은 것과 같다. 북한 영화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의 논리를 강조하다보니 극성(劇性)이 떨어진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영 자연스럽지 못하고 생경하기까지 하다. 익숙한 주제인 혁명투쟁이나 인민생활을 다루는 솜씨와는 분명 거리가 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영 예전만 못하였다. 북한 영화 자체가 재미로 불만한 꺼리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전에 비해 형상미도 대중성도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북한 영화가 지고 가야 할 주제만 부각된다.

북한에서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분명하다. 가슴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당 정책은 신문사설이나 강연, 연설, 강연, 논설을 통해 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머리를 받아들이는 일에는 감동이 없다. 감동이 없으면 자발성도 떨어진다. 시켜서 하는 일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영화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감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이 북한 영화에게 주어진 몫이다.

북한 영화에서 감정의 선은 영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정의 흐름을 중요시 한다. 사건의 논리적인 전개보다 감정이 흘러가는 흐름을 쫓아 간다. 주인공이 얼마나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처하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주인공이 얼마나 진심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진정성을 갖고 행동하였는지가 중요하다. 북한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이성을 넘어서 '감정의 과잉'은 결국 '숭고한 희생'이라는 미학을 뜻보이기 위한 장치이다.

● 최근 북한 영화에서 기다림, 느낌이 없어져

감성이란 무엇인가? 감성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감성은 그래서 직설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다. 때로는 거센 폭풍우처럼, 때로는 봄바람처럼 달라고 어루는 것을 좋아한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 이야기의 씨앗을 흙 속에다 숨기고 이야기 싹을 틔우면서 여름날의 소나기와 따가운 햇볕이 지나기를 기다린다. 여름, 가을의 기다림 없이 봄에 뿌린 씨에서 열매를 찾을 수는 없다. 북한 영화가 지루하고 답답한 것은 직접 말해도 될 것을 상대방이 진정으로 이해할 때까지 미묘하게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빠른 장면전환과 속도에 익숙한 어지간한 독자들에게는 지루하기 그지없는 진행이다. 그래도 그렇게 되어야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기다림은 북한 영화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북한 영화에서는 기다림, 느낌이 없어졌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많아졌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강도가 세졌다. 그러다보니 천천히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드러내놓고 반복적으로 강요한다.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제의 상당 부분이 경제 문제이다. 주제가 싹들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영화의 종자로서 경제문제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경제문제를 다루는 외피로서 영화가 차용된다. 그래서 주제도 재미없고, 내용도 재미없다. 매력적인 소재로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절실하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이야기들이 영화라는 외피를 쓰고 나온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대립되어 있고,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대립한다. 새롭게 변해야 할 미래에 대해 기존의 사유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북한 영화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없어지고, 심각한 대립이 부각된다. 실리문제, 과학문제를 두고서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에 분명한 선이 그어진다. 영화에는 애써 감추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북한 당국의 고민이 묻어난다. 경제나 과학에 대한 절실함이 넘쳐나고, 과학으로 매진할 것을 독려하는 목소리가 화급하다. 북한 영화는 지금 국가발전 동력으로 제시한 실리 사회주의의 정착과 과학을 통한 경제 발전의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였으며, 동대학원에서 고전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2002), 『고전소설의 역사적 전개와 남북한의 춘향전』 (2003), 『북한의 문학과 예술』 (2004), 『북한 영화 속의 삶이야기』 (2006), 『북한 예술의 창작지향과 21세기 트렌드』 (공저, 2009) 등이 있다.

겨레말 나들이 · 겨레말 편찬 현장 · 새로 찾은 겨레말 · 겨레말 우체통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편찬 현장

새말을 찾는 즐거움

오봉옥 /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 시인

《겨레말큰사전》은 문헌 조사와 현장 어휘 조사를 통해 기존 사전에 실리지 않은 어휘를 찾아 대폭 올리려고 한다.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새어휘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작가가 만든 어휘.
- 둘째, 기존 남과 북의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지역어.
- 셋째, 남과 북의 기존 사전(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 실려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뜻으로 쓰인 어휘.

지난 몇 년 간 편찬실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장 어휘 조사를 통해 많은 어휘를 새롭게 찾아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중 재미있다고 여겨지는 어휘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지난 해 새어휘팀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세미나를 겸해 모임을 가진 바 있다. 원광대학교에서의 세미나가 끝난 뒤 우리 일행은 금강 하구둑으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도우미 아주머니로부터 재미있는 말을 들었다.

“술은 뭘로 드릴까? 소주? 비가 올랑말랑하는 날씨도 그렇고 **얇은뱅이술**이나 드시제?”

소국주의 유래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귀를 사로잡은 것은 ‘**얇은뱅이술**’이라는 말이었다. 소국주가 달아 훌쩍훌쩍 마시다보면 취해서 얇은뱅이가 된 채로 일어나지를 못 한다고 하여 붙여진 말이었다. ‘얇은뱅이술’이라?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몰라도 말의 의미와 맛을 생각해볼 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촌철살인의 조어력이 따로 없었다.

일반 대중이 만든 속된 말들을 가만히 음미해 보노라면 무릎이 쳐질 때가 많다. ‘**뺏다방**’이 그렇다.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을 보면 중개업소(방)들이 돈을 벌기 위해 순식간에 ‘떠서’ 가건물이나 파라술을 쳐놓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일을 마치면 며칠 만에 또 철새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럴 때에 ‘방이 뺏다’는 말, 누군가 만든 이 ‘뺏다방’이라는 기막힌 어휘가 실감나지 않을 수 없다. ‘뚝심’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써의 ‘**뚝심**’도 그렇다.(북측 새어휘 6차분) 누군가에게 살가운 어조로 “뚝심 좀 써 봐라”라고 했을 때 그 말맛은 ‘뚝심’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보면 비속어의 문제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뚝’으로 시작되는 어휘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뚝’으로 시작되는 어휘들을 보노라면 살가우면서도 말맛이 살아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조금 과장되게 꼽잡는다면 ‘**뚝뚝**’, 바닷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갈매기를 ‘**뚝새**’, 마찬가지로 어망에 쉽게 잡히는 흔한 고기라 해서 점넙치, 도다리 등을 두루 일컬어 ‘**뚝가재미**’(남측 새어휘 8차분), 허투루 크게 부르짖거나 외치는 소리로 ‘**뚝고함**’(남측 새어휘 13차분), 노름 따위에서 꺾발이 나빠지는 것으로 ‘**뚝꺾발**’(남측 새어휘 13차분), 뚝을 먹는 잡종 개의 새끼나 자기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적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 또는 양증맞은 자식에게 하는 살가운 표현으로서의 ‘**뚝강아지**’(남측 새어휘 13차분) 등의 어휘가 그렇다.

어둑해 오는 봄날 저녁
상긋한 산나물에도
술한 이야기는 살아나
살이랑마다
고뇌의 얼룩무늬를 짠다

-김초혜, <어머니 3> 중에서

! 우리 주변에는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 주옥같은 어휘들이 많다. 작가들이 만든 어휘가 그것이다. 《겨레말큰사전》은 그런 어휘에 생명을 불어넣는 한 차원으로 서 옥석을 가려 좋은 어휘들은 과감히 사전에 올리려고 한다. 이를테면 주름살을 비껴 이르는 말로서 ‘**살이랑**’이라는 어휘를 만든 김초혜 시인의 경우가 그것이다.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 계몽기 소설로 나온 최찬식의 <춘몽>(1924)을 보면 ‘**눈뚱**’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눈뚱**’(북측 새어휘 7차분)이라는 어휘를 만들어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눈뚱**’역시 ‘**눈뚱**’과는 전혀 다른 정서적 호소력과 말맛을 풍겨내고 있다는 점에서 옛 책에만 묵혀두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다. ‘**종가슴**’(북측 새어휘 7차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그마한 가슴 또는 조마조마한 가슴으로서의 ‘**종가슴**’이라는 어휘는 되새겨볼 수록 말맛이 살아나는 경우이다. 몹시 추운 겨울을 ‘**쇠겨울**’(남측 새어휘 6차분)로 명명한 경우도 그렇다.

현대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섹시하다’가 있다. 이 말은 성적 매력이 있을 때 사용된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 말을 ‘관능적이다’ 또는 ‘산뜻하다’로 순화시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관능적이다? 산뜻하다? 왠지 부족한 느낌이다. 이 말과 관련하여 《겨레말큰사전》 새어휘 19차분엔 ‘**섹스럽다**’라는 어휘가 올라와 있다. 이 밖에도 새어휘 19차분엔 ‘섹스러운’ 어휘가 많다. 살 시종하는 보살이라 하여 ‘**살보살**’, 몸을 파는 일이라 하여 ‘**살품**’, 성교를 또 ‘**살요기**’로 대체하고 있다. 재미있는 말들이라 할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은 기존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지역어를 대폭 실고자 한다. 서울말과 함께 각 지역의 말들도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의 여러 지역 말을 아우르는 민족공통어 사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존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아름다운 고장말은 참으로 많다. 이를테면 강원도말로서 어부가 배를 바다에 올리거나 내릴 때 하는 지레질을 ‘**둔데질**’이라고 한다. [“둔데질로 배를 띄워/우리가 바위와 바위 사이/작은 선창을 떠나면”, -고형렬 <옛 선창> 중에서]

‘개구리’의 황북, 평남, 평북, 자강 사투리는 ‘**역장구**’이다.(북측 새어휘 13차분) ‘**당감주**’는 ‘식혜’의 함남 지역 사투리이고(북측 새어휘 6차분), ‘**몽어**’는 ‘송어’의 전북 사투리이다.(남측 새어휘 8차분) 지역말을 찾고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보면 새롭게 밝혀지는 일이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갓사둔**’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백석 시인의 시에서 추출한 평안도 어휘인데 그 원전에 ‘갓사둔’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를 ‘갓사둔’의 오기(誤記) 쪽으로 보고 그렇게 표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갓사둔’은 말 그대로 방금 새로 인연을 맺은 사둔이 된다. ‘갓사둔’의 ‘갓’은 표준어 ‘이제, 막’의 뜻을 지닌 ‘갓’에 해당하는 말이다. 함경도와 평안도 방언에선 ‘가즈’라 한다. 즉 ‘가즈’가 줄어든 말이 ‘갓’이고, ‘갓사둔’은 곧 ‘갓사둔’이 된다. 하지만 현장 어휘 조사를 하다 보니 이 ‘갓’이 ‘갓’의 오기가 아니라 ‘가지’에서 온 말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갓사둔’은 ‘새사둔’이 되 ‘이제 막’ 사둔이 되는 의미에서의 ‘갓사둔’이 아니라 새로운 ‘가지 사둔’이라는 의미에서 ‘갓사둔’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좀 더 확인에 확인을 거쳐야 판명이 될 사안이지만 으레 그럴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은 이 밖에도 기존 국어사전에 실려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뜻으로 쓰인 어휘를 ‘새말’로 삼아 다루고자 한다. 이를테면 ‘**생가슴**’이라는 어휘는 공명한 근심이나 걱정으로 인하여 상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은 시인은 그것을 ‘숯된 마음’으로 그 쓰임을 달리해 사용하고 있다. [“나 시집오기 전에/생쳐녀 생가슴으로 그 모양을 보았어라”, -고은 <자장가> 중에서] 쓰임이 다른 말 하나하나가 우리말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는다. 이 또한 새말을 찾는 즐거움 중 하나이다.

겨레말 나들이 · 겨레말 편찬 현장 · 새로 찾은 겨레말 · 겨레말 우체통 · 겨레말 소식

■ 새로 찾은 겨레말

바치와 바시

이길재 / 겨레말큰사전 새어휘팀장

관인들은 창을 들고 물이꾼들은 손에 작대기를 들고 {매바치는} 팔목에 매를 받고 산을 향하여서 길을 떠났다. {이광수: 꿈}

동고티 옥정골 가다가
시누대 시퍼렇게 우거진 경바치네 집
{경바치} 송만옥 영감
뿔뿔¹⁾에 수염이라고 예닐곱 가닥 매달려
바람에 나부낄 것도 없다
{고은: 송만옥 영감}

우리 두릴 때 먹을 거 어시난 아기덜 맥이젠 평사농허는 평바치덜도 하나신디.
{우리 어릴 때 먹을 것 없으니까 아기들 먹이려고 평 사냥하는 평바치들도 많았었는데.}

1) 뿔처럼 뾰족한 턱, 또는 그런 턱을 가진 사람.

이광수의 소설 '꿈'과 고은의 시 '송만옥 영감', 제주방언의 말마디에서 보이는 '매바치'와 '경바치', '평바치'는 모두 '-바치'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매바치'는 '매사냥꾼'이고, '경바치'는 '경쟁이' 즉 무속신앙에서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경을 읽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며, '평바치'는 '주로 꿩을 사냥하는 사람'이다. '-바치'는 다른 말과 결합하여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나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말이다. '-바치'가 결합된 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여럿 올라 있다. '갓바치, 노릇바치, 동산바치, 매석바치, 장인바치, 점바치, 총바치, 침바치' 등이다. '갓바치'는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이고, '장인바치'는 '장인', '점바치'는 '점쟁이', '총바치'는 '사냥꾼', '침바치'는 '침쟁이'이다.

{바느질바치는} 가서 옷짓기를 가르치고, {질바치는} 가서 질그릇만들기를,
음식 만드는 숙수는 가서 음식 만들기를 가르쳤다. {최현배: 나라사랑의 길}

난 내일 {활바치를} 찾아가서 물묵만 남기고 나면 혈혈단신일세. {김주영: 객주}

노비들이야 애시당초 실개 뽐아놓지 않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요,
장사꾼은 노상 돈을 만지는 분수고, {쟁이바치나} 막일꾼은 일용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보문,
살기가 농사꾼보다 낫다 한들 밭에서 무시²⁾ 하나 뽐아주듯기 배고픈 나그네한테 돈 한 잎 주기는 어려운 일이제.
{박경리: 토지}

정지라고 들어가니 {할림바치} 시누이가... {조선가요집}

2) 무.

경바치, 평바치, 매바치와 더불어 '바느질바치'나 '질바치', '활바치'는 아직 어느 사전에도 올라있지 않은 겨레말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바느질바치'는 '옷을 깎거나 짓는 사람'임을, '질바치'는 '질그릇을 만들거나 굽는 사람'임을, '활바치'는 '활을 만드는 사람'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쟁이바치'는 앞서 말한 '장인바치'를 뜻하며, '할림바치'는 '눈을 잘 즐기는 사람'이다. '-바치'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또 다른 말은 '바시'이다.

산꼭도가 양민 가운데 숨어 살기를 머릿니가 {겔바시} 헌 머리에 서캐 쓸듯 하니
어느 하세월에 참빛으로 굶으니며 가랑니며, 서캐를 훑어 내 잡을 것이냐. {헌기영: 도령마루의 까마귀}

옛날에는 그래 부지런하던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요새는 고마 {게글바시가} 됐다.

저눔은 {겔바시라서} 누가 시키도 일을 안 한다.

'겔바시'는 '거지'를 나타내는 제주도 방언이며, '게글바시'나 '겔바시'는 '게으름쟁이'를 뜻하는 경상도 방언이다. '겔바시'는 '겔'의 '겔(乞)'과 '-바시'가 결합된 말이며, '게글바시'와 '겔바시'는 '게으르다'의 경상도 방언인 '게글다'의 '게글-'과 '깨들다'의 '깨들-'이 줄어든 말 '겔-'과 '-바시'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겔바시, 경바치, 매바치...' 등은 아직은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말이지만 《겨레말큰사전》을 통하여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될 소중한 우리 겨레의 자산이다.

※ 이 글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화해지(7-8월호)에도 기고된 글입니다.



겨레말 나들이 · 겨레말 편찬 현장 · 새로 찾은 겨레말 · 겨레말 우체통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우체통

말은 섞고 삼시다

— 이재규 / 겨레말큰사전 사무처장



바로 조금 전의 일도 쉽게 잊고 사는 현대사회에서 60년 전의 일을 애써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이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컴퓨터처럼 차곡차곡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고 어떤 끔찍한 일도 때론 잊고 살기에 사람이요 또 그래서 내일을 희망의 담보로 살아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 큰 불행을 겪은 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노라면 시간의 위대한 힘인 '망각'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인간적이고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어떤 상처는 좀처럼 마르지 않고 늘 덧이 나기도 한다. 해마다 6월이면 마음 한구석에 묻어 두었던 깊은 슬픔이 스멀스멀 되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 6.25.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한국전쟁'은 그런 슬픔의 저수지이다.

60년 전의 전쟁은 우리를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 그때 포격으로 무너진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다. 남과 북, 가까이는 한 마을 안에서든 많은 것이 무너져 내렸다. 증오의 크기만큼 서로에 대한 추억도, 혈연도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져 전후 우리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남과 북은 두텁고 높게 경계의 담을 쌓아올렸다. 이산의 고통은 더욱 현실적이어서, 북에, 남에 남은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언제 불쑥 다가올지 모를 횡액에 안절부절 마음을 조리는 처지가 되었다. 전쟁은 그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금들을 그어 놓았다. 전쟁의 참화로 몇 만 명이 죽었다는 통계 보다 이것이 더 무서운 일이었다. 남과 북에서 반대쪽을 건너다보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 금기였고 결국 민족 전체의 상상력이 닫혀 버렸다.

전쟁의 결과, 남과 북은 각각의 체제를 극단으로 밀고 갈 수 있었다. 북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바탕으로 '인민'들을 물샷틈없이 무장시키고 자력갱생의 외길로 나아갔다. 북한 전역이 초토화되고 그쪽 체제의 입장에서 볼 때 이질적인 분자들이 월남하여버린 조건에서 북의 체제가 한쪽 방향으로 일색화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길이었는지 모른다. 남은 어쨌든가, 격렬한 전쟁과정을 통해 반상이 사라지는 등 단일한 '국민'이 탄생했다. 강력한 반공주의가 힘을 얻고 국가의 힘이 만능인 사회가 되었다. 전쟁을 통해 비대해지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갖추게 된 군부가 이후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은 어찌 보면 예고된 수순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군대와 관료로 앞세운 노동집약적 수출전략은 바로 이같은 전쟁의 유산으로 남겨진 사회구성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80년대 중반까지의 풍경만으로 보자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일사분란, 총력동원체제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쟁 이후 수십 년 남과 북은 서로에게 적대적으로 기대며 각각의 체제 전략을 밀어붙였다.

전후 60년. 이제 전쟁의 기억과는 무관한 세대들이 남북 각각에서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고 세대를 넘어 전승되어 왔다. 반공운동대회, 전쟁 포스터와 구호, 교련, 학도 호국단은 사라졌지만 민방위 사이렌이 상징하는 전쟁의 공포감은 여전히 우리 사회 밑바닥 무의식을 지배한다. 북은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혁명중'인 나라다. 북의 사회체제는 전쟁의 기억을 중심으로 60년 동안 단단하게 구조화되어 왔으며 남북의 대결체제가 상존하는 한 그 모습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구나. 때로 잊고 살지만 한반도의 양쪽 사회는 모두가 휴전체제 아래 성립되어 있는 '과도기' 공화국이란 사실에 새삼스레 전율한다. 전쟁의 참화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낯선 손님처럼 느닷없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리 삶의 시간은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것. 이것과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한반도의 미래는 없다는 아픈 각성에서 우리는 전후 60년을 거쳐 온 현 체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이 각각 걸어온 60년의 삶을 인정하고 보듬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의 시간들이 진정으로 '전후'가 될 수 있다.



통일국어사전을 만들자며 남북을 오가며 만난 지 5년째가 되어간다. 남북의 긴장이 높아질 때 우린 농담반 진담반으로 "총알이 오고가도 우리는 만남시다." 이런 말끝에 헤어지는 악수를 하곤 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총알이 오고 간다면 우리는 어찌 될까. 아마도 각자의 내부에서부터 "지금이야 어느 때인데 그런 한가한 소리 하고 있냐", 정신 나간 축 대접 받기 십상일 것이다. 그래도 말은 섞고 살아야 한다. 가장 어려운 때에도 서로가 숨 쉴 틈, 우스개를 건넬 휴지의 공간을 만들어야 상대방을 인간의 숨결로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

말길이 끊어질 때 오해가 깊어지고 끝내 갈라서게 마련이다. 그런데 꼭 그 길을 가야 하나. 말길조차 끊어버리고 60년 전처럼 그렇게 다시 증오의 낯빛으로 돌아가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제압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인가. 전쟁의 기억이 남아있는 6월에 돌이켜봐도 그건 아니다. 그런 야만의 시대는 20세기로 족하다.

남과 북의 영토적 통일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다. 그러나 60년 이상 오랜 내상을 앓아온 사람들의 통일은 그런 쉬운 길로 가는 길이 아닐 것이다. 우리 내면의 통일, 마음의 통일은 어제의 적이었던 사람과 함께 울고 웃으며 오래 대화하고 상대를 껴안을 때 가능한 것이다.

6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잔혹한 죽임과 이산의 기억이 남아 있다. 매년 6월이 오면 전쟁이 남긴 상흔을 우리는 남은 반쪽의 삶으로는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아프게 깨닫는다. 달력을 들여다보자. 총칼을 들어 서로의 존재 자체를 전면 부정했던 6.25가 있다면 '서로의 상처와 영광'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어야 비로소 통일이 가능하다며 손을 내밀었던 6.15가 같은 달에 함께 존재한다. 그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의 깊은 의미를 놓치지 않을 때, 오래 세월 묵혀온 이 깊은 상처는 비로소 아물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말은 섞고 살자.

겨레말 큰사전

누리판

제 28호

겨레말 나들이 · 겨레말 편찬 현장 · 새로 찾은 겨레말 · 겨레말 우체통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소식

국사편찬위원회,

국어대사전 제작 전문가 심층 인터뷰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3월 국내 종이사전 제작 전문가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통한 구술 기록을 남겼다.

이번에 참여한 사전 제작 전문가들은 '1세대 국어사전 장인'으로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을 편찬한 **조재수**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장, 이희승 국어대사전을 만든 **윤차현** **민중서림** 상무, 금성출판사 국어대사전을 만든 **안상순** 전 **사전팀장**, 두산동아의 국어새사전을 만든 **서덕수** 전 **편찬주간**, 한플러스 국어대사전을 편찬한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 이사장** 등 5명이다.

인터뷰 진행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김양진 연구교수와 한양대 국문과 오새내 강사가 이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사전 제작 기술과 관련 경험을 구술 받아 기록하였다.

안상순 전 **금성출판사** **사전팀장**은 “단어 용례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먼저 뜻풀이를 하고 (그 뜻에 맞는) 용례 찾으러 다닌 거예요. 대학생들 동원해서 한국문학전집 풀어놓고 문맥 의존도가 크지 않은 문장들, 잘라냈을 때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유형의 예문을 다 찾아내도록 해가지고 한국 문학 전체를 한번 짹 뽑아내는 작업을 했어요.”

“60년부터 62년까지 여섯 권으로 나온 (북한) ‘조선말사전’... 일본의 한 서점이 그 여섯 권을 단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걸 입수한 분이 한글학회에 있었어요.” 1978년 한글학회에 들어가 1991년 ‘우리말큰사전’이 나올 때까지 사전 업무를 담당한 **조재수** **겨레말큰사전** **위원장의** 증언이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동영상, 음성 녹음 파일, 녹취록 등은 정리기간을 거쳐 연말쯤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www.history.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